

6·25는 하나님의 발신 번호

요즘 컴퓨터나 자동 기계에서는 주로 숫자와 알파벳의 결합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간다. 사람 이름도 숫자로 표시하고 개발의 잠재성도 숫자의 통계로 측정하곤 한다. 우리 나라에서도 언제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무슨 국가적 사건이 발생하면 그 날짜를 떼어서 사건의 이름으로 쓰게 되었다.

8·15, 6·25, 4·19 등등 아마도 정감록 풀이에 맞먹는 모습이 라고나 할까! 숫자 배후에 가리워진 사건의 중대성을 실감하기엔 좀 어색한 표현인 것 같다. 6·25 하면 이 세상 어느 나라 사람도 느낄 수 없는 한숨과 슬픔을 우리 가슴에 가져다 주는 숫자이다. 그것은 전쟁이라는 사건이 초래한 참변, 인명 피해, 전쟁 고아, 미망인 등의 비참한 결과보다 우리 마음 속에 큰 변화를 가져온 전쟁이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부서질 대로 다 부서진 국가, 국민의 마음을 한 동안 악순환 속에 몰아 넣었다가 다시 전진을 향해서 일어나게 한 크나큰 역사적 시련이기도 했다. 이 시련 앞에 선 우리의 마음에는 지난 이십년 동안 큰 변화가 생겼다. 한국 역사가 세계 역사에 문을 개방하고 이에 동참한 것도 이러한 계기 때문일 것이다.

전진! 이것은 펴 매력적인 구호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어디를 향해서 전진하는가? 부유한 나라? 미국과 같은 부유한 나라도 빈곤에 항거하는 행진이 요즘 계속되고 있지 않는가? 골고루 다 같이 잘 사는 나라? 꿈과 같은 전진의 목표다. 빈곤이란 반드시 경제적인 빈곤을 극복하는 것이라면 너무나 피상적인 이야기다. 빈곤은

결코 빈곤 자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빈곤의 문화라는 말이 있다. 경제적인 빈곤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빈곤 문화에 젖은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부흥이 소용없다. GNP가 3백불 이상으로 올라도 이런 사람은 여전히 빈곤의 처지에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홍부와 놀부>식의 빈곤 방식이 뿌리 박혀있다. 천대 받고, 매맞으면서도 마음만 착하면 천심이 움직여서 호박 속에 담뱃보화를 기적적으로 준다는 빈곤 사상이 있는 한, 이 나라에서 빈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땅을 갈고, 씨를 뿌리기를 게을리하고, 자식 낳기만 열중하면서 고용살이나, 남이 맞을 때를 대신 맞고 돈을 벌려고 하는 비생산적인 정신이 바로 빈곤 문화인의 사고 방식이다.

빈곤 문화는 결코 <마음의 가난함>과 혼돈되어서는 아니된다. 우리 교회는 몹시 가난하다.

서양 격언에 <교회 안의 쥐처럼 가난하다>는 말이 있다. 푸짐한 부잣집 창고에서 사는 쥐보다 교회당 안에 우거하는 쥐는 으레 가난하기 마련이라는 뜻일 것이다. 그렇다고 교인들이 다 빈민이라는 뜻은 아닐 것이다. 다만 교회가 가난하다는 뜻이다. 왜 그럴까? 6·25사변이 터지자 남부 여대 행열이 부산을 향해 피난을 갈 때 모든 것이 아쉬웠다. 물 한 모금, 풀 한 포기, 아니 저 푸른 하늘도 몹시 고마웠다. <오 주여! 우리에게 다시 살 길을 허락해 주시거만 하면, 공산군을 무찌르고 다시 수복할 기회만 허락해 주시면 주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가꾸겠습니다. 분열과 파당을 짓지 않고 감사와 기쁨의 생활을 하겠습니다>하고 몇번이나 다짐하고 기도했던가? 이전까지 미워했던 형제와 화해를 하고 참 성도의 사경을 가지겠다고 몇번이나 호소하였던가?

그러나 우리에게 승리의 축복이 허락되었을 때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언제 했던가 하듯이 또 다시 파당, 분열에 혈안이 되어버렸다. 참 어처구니 없는 암체 신앙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래서 이전 보다 더 극성스럽게 싸우고 더 멋지게 분열하고, 더 호화스럽게 상대방을 깔아 뭉개버리게 되었다. 남을 괴롭히는 일을 통해서 자신을 괴롭히는 자학 행위가 성행했다. 갈라진 지체의 아픔도 별로 감각할 수 없게 되리만큼 이 자학 행위는 계속되었다. 경건한 기도와 찬송으로써 이 자학의 상처를 달래기도 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울가미 속에 스스로 걸려 들어서 몸부림치며 십자가를 진다고 억척을 부리기도 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더 가난해졌고 보따리 속에 감추어진 달라만 노려보는 빈곤의 사고 방식이 짝 트게 되었다.

갈라진 교회, 마디가 풀어진 지체에는 생명이 없고 부요함도 없고 따라서 가난도 없는 무생물이나 다름없다. 독선과 자기 도취 때문에 형제를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도 용납하지 못하는 존재이다. 그러기에 먼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자신의 자학 행위에서 벗어난 분열의 상태가 치유 받도록 기도해야만 하지 않을까?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힘 쓰지 않고서 삼천만 동포에게 전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갈라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끊겼던 마디가 다시 붙게 되고, 해골에게 생명이 다시 회복되듯이 치유의 은총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는 형제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

6·25는 우리에게 이런 분열의 뜻을 되새겨 주는 숫자이다. 분열에서 다시 통합을, 유기적인 생명의 통합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변호이기도 하다,